

지역 소식통

고창군, 영농철 가뭄 피해대책 수립 나서

고창군이 영농철 가뭄피해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주철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전날(23일) 오후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철 가뭄대책 관련 현안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기준 고창군 강수량은 149.5mm로 전국 평년(2021년11월~2022년5월) 283.2mm의 52.8%에 불과한 상황이다. 관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64.1%로 가뭄에 대한 관심단계(저수율 60~70%)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가뭄 대비를 위한 관정 개발(중형 21공, 대형 2공)을 추진하고, 관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저수량 수시 조사, 물관리 철거 및 양수장비 긴급점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천 내 흐르는 유수를 가뭄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천굴착과 가물막이 등 농업용수 공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마늘, 고구마, 고추, 배추 등 밭 작물 생육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60세 이상 시민 '치매 예방 교실' 운영

정읍시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운영은 치매 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된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2회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지 활동과 미술 활동, 노래 활동, 공예 활동, 놀이 활동 등으로 전문 인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 능력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와 노인 우울척도 등을 평가해 인지 기능 향상과 노인 우울증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국 1등 수박 노린다!

정읍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본격 출하... 당도 높고 맛과 향·식감 뛰어나

정읍시의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했다.

정읍은 연중 일조량이 많고 비옥한 토양과 물이 풍부해 수박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정읍 수박은 씨 없는 흑피 수박으로 유명한데 겉질 색이 일반 수박보다 진하고 정마찰에도 당도가 일반 수박에 비해 1~2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2012년 제



제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은 2012년 제

배를 시작해 현재는 35ha 면적에서 최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타 산지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 식감 등이 우수해 5~15%(2만원~2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12브릭스 이상 최상위 품질만 엄선된 수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주요 도시의 과일매장에서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경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등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정읍 수박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3차 모집

27일부터 3일간... 월 최대 10만원 지원

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1, 4월 1, 2차 모집에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 3차 모집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

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 월 최대 10만원이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안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농촌영화제 '농촌의 짧은 시선·한국단편경쟁' 부문 작품 공모

고창군이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에서 '농촌의 짧은 시선·한국단편경쟁' 부문 작품공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단편경쟁부문은 고창농촌영화제가 추구하는 농생명 영화·영상 분야의 영화 콘텐츠 발굴과 영화인들의 다인한 영화적 시선을 통해 고창의 농생명 영화·영상문화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16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고창농촌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gff.co.kr>)에서 출품 가능하다.

주제는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하거나 자유 소재로 제작한 작품으로 2021

년 8월 1일 이후 제작된 러닝타임 30분 미만의 극영화 작품만 출품 가능하다. 고창에서 촬영 혹은 소재 영화일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총시상금은 400만원이며, 공모기간 이후 영화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4개 부문대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문구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농협고창군지부장)은 "올해 고창농촌영화제에 신설된 한국단편경쟁부문 작품 공모를 통해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영화 작품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영화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은 "고창군이 가진 청정자연환경과 농업·농촌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고창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성장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는 10월 28일부터 31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드라이브시네마, 장·단편 영화 제작 공모 및 시상식 상영,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무비토크, 영화 OST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농약으로 인한 농촌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자살위험 없는 건강한 정읍'

정읍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전달식 가져

정읍시가 농약으로 인한 농촌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의 주된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음독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3일 정읍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2022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현판전달식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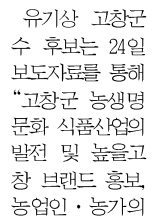
참석한 가운데 현판전달식과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마을 협약 체결, 생명지킴이 선서, 생명사랑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 자살예방협회 농약 보관함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4개 마을 1,337가구에 농약 보관함을 보급했다.

올해는 신외면 5개 마을과 정유면 5개 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 총 307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우울 선별검사와 자살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률을 낮추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농산물 홍보 악용 유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군 농생명 문화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높고 건강한 브랜드 홍보, 농업인·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작년 농업인의 날에 열린 2020 탄소중립 선포식과 '농축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가 정경의 도구로 악용이 된 듯 하여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기상 후보는 고인돌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군의회의장, 농업인단체회장, 고인돌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석한 그 날 행사에 대해 "코로나 19 확진자 확산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는 취소가 되었고 선사시대 농경문화 생활풍습을 재현하기 위한 전제만



진행하였다"며 "당시 의복으로 환복하고 연이은 비번 일정과 비가 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며 제단과 제물을 모형으로 착각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인식에서 토론회 말미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진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단위에 있는 제물을 모형으로 착오인식한 상황의 과정을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장했다.

유 후보는 "주민들의 토론회 평가가 심덕섭 후보 본인이 수세로 물리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군의 자랑인 고인돌역사문화와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그리고 우리 군민 특히 농민들의 사기 진작, 농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까지 선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지도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